

농어촌공사, 제56회 중앙운영대의원회 개최

-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 공사 경영에 반영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29일 충북 증평 에듀팍에서 「제56회 중앙운영대의원회」를 열어 지난 2년 동안의 임기 동안 농어촌 발전을 위해 함께해 준 제10기 중앙운영대의원 12명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과 공사 및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자문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중앙운영대의원회는 농어업인의 참여를 바탕으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농어업인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또, 반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각 지역 현안과 농어업인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공사 경영에 반영해오고 있다.

이날 회의는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을 비롯하여 강현옥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장, 중앙운영대의원 및 공사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 제10기 중앙운영대의원회 경과보고 ▲ ‘23년도 수자원관리 종합현황 ▲ ‘23년도 농지은행사업 종합현황 ▲ 농어촌 발전을 위한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이날 토론에서 “가뭄·홍수 등 기후재해, 농어촌 고령화 등 농어촌이 직면한 위기를 이겨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촌 전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사가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병호 사장은 “2년간 농어업인을 대표하여 농어촌 발전에 적극 힘써주신 제10기 중앙운영대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농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사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의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수자원관리처 수자원관리부	책임자	부 장	고재한 (061-338-5541)
		담당자	차 장	윤영희 (061-338-5564)